

한국 담비

▶ 이성민(충북대학교), 이정민(홍익대학교)

우리 동네를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를 잡아라!

장려상

리포트

충청지역에서 신도심 건설이
꼭 구도심을 낙후시킬까?

영 상

대한민국의 도시 역사



각오한마디!

안녕하세요. ^^

제5회 청소년 체커톤 대회에 참가하게 된
'한국담비'팀입니다.

이번 체커톤 공모전에 참여해서
지역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팩트체크를 해보며
보는 이들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함께 즐겼으면 합니다.

팩트체크 리포트

충청지역에서 신도심 건설이 꼭 구도심을 낙후시킬까?

팩트체크 계획 수립하기

➡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저희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신도심의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나 목소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도심을 건설하면 구도심에는 악영향만 준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여태까지는 그렇게 생각해왔지만 정말로 신도심이 항상 구도심을 꼭 낙후시키며 악영향만 미치는지에 대해 문득 의문점이 생겼으며 평상시에 이와 관련 뉴스를 많이 보았는데 특히 “충북혁신도시”, “세종 행정복합도시” 등 신도시에 관한 뉴스를 많이 보았는데 그 예시로 서울뉴스에서는 2020년에 세종특별자치시 행정 중심복합도시가 중심지였던 조치원읍은 신도시에 주인 자리를 내준 뒤 변두리로 밀고 구도심을 몰락시키고 보도하였으며 중앙일보는 2020년에 충북혁신도시로 인해 음성군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고 하였으며 충청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도시 건설로 인해 구도심이 피해만 본다는 뉴스와 몇몇 지역은 이로 인해 신도시 건설을 반대한다는 뉴스를 평소에 많이 보았는데 예시로 고양, 파주시에서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신도시가 건설되면 기존 1기, 2기 신도시의 교통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KBS 뉴스가 있습니다.

신도심 건설은 언제나 구도심과 신도심의 논쟁을 일으켜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도심 건설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신도시

가 새로운 신도시가 지어지면서 구도심으로 변화기도 하였습니다. 예시로 1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가 지어지자 구도심으로 변하였고 2기 신도시는 현재 3기 신도시가 지어지자 2기 신도시도 구도심이 되었습니다.

“신도시”란 개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존재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도 신도시를 짓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신도시 건설이 구도심을 몰락시킨다면 세계 다른 국가들의 신도시도 그 국가의 구도심을 몰락시킬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이 구도심을 몰락시키지 않는다면 타 국가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외국의 사례도 참고하여 국내 사례와 비교를 할 것입니다. 외국과 우리나라 모두 신도시가 원도심에 주는 영향은 비슷할 것 이라고 생각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차검증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신도심이 구도심에 주는 피해가 있다면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 피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신도시의 건설로 인해 구도심의 인구 혹은 경제규모가 줄어들거나 젠트리피케이션 혹은 기타 피해가 발생하는가?’ 또한 저희는 신도시가 구도심에게 주는 악영향에 관한 다음과 같은 논문을 찾았습니다.

JKPA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에 2021년 4월 5일에 Impacts of New town developments on urban shrinkage in their surrounding areas: focusing on Non-capital Region 이라는 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2) Impact of new towns on a city

New towns created in suburban areas in the past to resolve the overcrowding issues of metropolitan cities have led to positive results; however, there is a critical view against such towns, arguing that significant manpower and material resources are excessively funneled into new towns in the midst of the era of low growth (Kim, 2007).

There have been several studies conducted on the correlation between new town development and the decline of old towns, focusing on the capital region. The closer the new town is to an old town, the more severely the old town's industrial function declines, and the degree of decline is especially serious in urban-type industries, such as accommodation, food services, finance and insurance industry (Lim, 2008). It was found that the larger the size of the housing site district to be created, the greater the negative impact on the neighboring old towns (Kim and Hur, 2017). As the spatial expansion of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s adjacent to the new town has occurred, and with a new urban axis formed, the need for urban spatial restructuring is emerging (Kim and Lee, 2002).

In studies conducted in non-capital regions, the urban decline in neighboring areas due to the development of new town presented a similar aspect as well (Choi, 2005; Lee and Shin, 2007; You et al., 2012). In Choi (2005), which analyzed the impact of new towns in Gangneung-si, showed the population redistribution phenomenon leading to population growth in new towns through a population transfers analysis. It was also found that the population moving in from adjacent locations was greater than those moving in from remote areas. This means that the neighboring regions of the new town have suffered the urban decline due to the new town development. Similarly, Lee and Shin (2007) categorized the types of new towns in Jeju Island to analyze the impact of new towns on population, suggesting that the new town development in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have more negative impact such as excessive unsold housing and green belt destruction than positive ones like large-scale housing supply. In line with that, in non-capital regions, new towns were developed in suburban areas thanks to the advanced transportation and expanded infrastructure, and the new towns were found to absorb the population in the suburban areas, including that of the old towns. It was also found that the smaller the size of an old town, the more severe urban decline it may suffer due to the development of a new town (You et al., 2012).

In preceding studies, it was found to be common that new town development caused outmigration within the same region, potentially leading to decline in the old towns and neighboring cities. In this sense, the need for a regional-scale approach has emerged to more comprehensively considers the old towns and the new town development area before implementing reckless development of a new town (You et al., 2012; Eom and Woo, 2014).

이 논문을 요약하면 한국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에서는 신도시 건설이 주변 구도심을 오히려 몰락 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논문에서 주장 중 일부를 요약해서 가져오면

1. development of new towns were found negative effects to old time such as absorbing the popuation of old town which cause the urban decline and outmigration. (신도시 건설이 주변 구도심에 인구를 흡수하여서 구도심을 몰락시킨다.)

Taken together, it can be said that new towns are being developed all over the country despite the ever-declining growth and expansion rate of the domestic population and cities, and the urban decline of the old towns and neighboring cities due to the new town development is being discussed in academia. The situation signifies that the decline of small-and-medium-sized cities can be further accelerated if a new town is created adjacent to those cities already experiencing urban decline, which could potentially lead to urban shrinkage with severe reduction in population. The existing literature has mostly involved research conducted on single cities, in which a new town development is planned, with only few comprehensive discussions made on the implications of new town development and urban shrinkage. To take into account not only the city with new town development plan but also its neighboring cities and regions, a

출처

1. 유튜브(KBS시사), 2019-09-28, 3기 신도시 반대 운동에 나선 주민들...현장르포, 신도시의 외침 [촬영] | 시사기획 창 252회, <https://www.youtube.com/watch?v=sFtlh69u4IU>
- 2.이현정, “땅값만 오르고, 원주민은 살 곳 잃고... 이름뿐인 ‘혁신도시’”, 서울신문, 2020-11-16, 9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16009004&wlog_tag3=naver
- 3.최종권, “한지붕 두 가족 충북혁신도시...진천은 반색, 음성은 울상 이유는?”, 중앙일보, 2020-01-1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80799>
4. Shin-Hakcheol Woo-Myungje, Impacts of New Town Developments On Urban Shrinkage in Their Surrounding Areas : Focusing on Non-capital Region,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Vol.56,No.3,pp.21-35 , 2021-04-05, page5 http://kpaj.or.kr/_common/do.php?a=full&bidx=2608&aidx=29635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Orte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28619> (둘다 같은 논문)

2. “the new town development in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have more negative impact such as excessive unsold housing and green belt destruction” (신도시 건설은 기존 그린벨트를 해제 즉 의미가 없게 만들고 중소도시들의 많은 집들이 팔리지 않게 하였다.)

3. “The closer the new town is to an old town, the more severely the old town’s industrial function declines, and the degree of decline is especially serious in urban-type industries, such as accommodation, food services, finance and insurance industry (Lim, 2008).”

(신도시가 구도심에 가까울수록 구도심의 숙박, 음식료, 금융, 보험 등 서비스업은 붕괴한다.)

→ 저희는 이걸 상권의 공실률이 올라간다 혹은 상권이 축소된다고 해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신도시 건설이 무조건 구도심(원도심)에 악영향만 미치는가에 대해 궁금하고 이에 관해 팩트체크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 팩트체크 방법에 대한 계획

1. 통계자료 (인구 변화, 경제 규모)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며 이를 우선순위 제일 앞으로 둘 것입니다. 신도심이 건설된 후 원도심의 인구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리고 원도심의 경제 규모나 경제에 대한 통계자료는 대한민국 통계청의 자료를 사용하여 가능한 신도심이 건설된 후와 그 전의 규모를 비교할 생각입니다. 또한 유소년층(0~19세) 인구의 비율 및 명수를 측정할 생각입니다. 유소년층 인구를 조사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유소년층 인구가 많은 지역은 주로 젊은 세대들이 이사오는 경우입니다. 보통으로 연령대가 높은 분들은 기존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아이가 있는 집은 젊은 세대일 경우가 많으며 이 세대는 애향심이 상대적으로 적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 지역보다 더 발전하는 도시라고 이사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 외국 정부기관 통계자료

일반적으로 국내와 외국 모두 비슷할 것입니다, 만약 국내에서 신도시가 구도심에 피해를 준다면 외국의 신도시도 비슷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외국 또한 그럴 것입니다. 만약 국내와 외국에서 신도시가 구도심에 주는 영향이 정 반대면 그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이유를 분석하거나 자료가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차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와 외국의 통계자료를 사용할 것입니다.

3. 논문

논문을 통해 신도시 건설이 구도심에 주는 영향을 찾아볼 것입니다.

체크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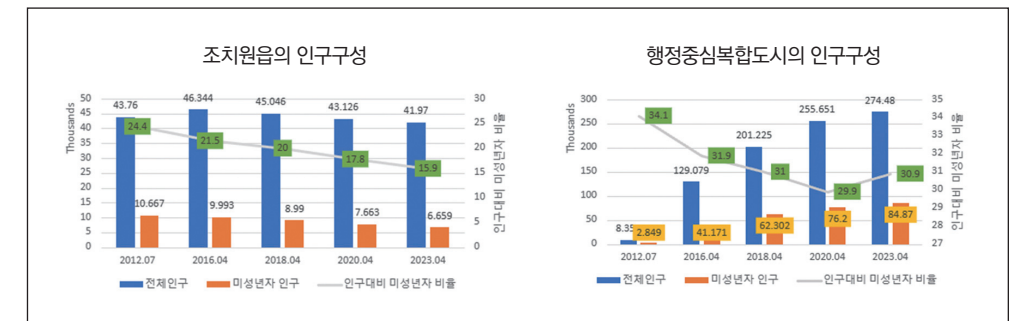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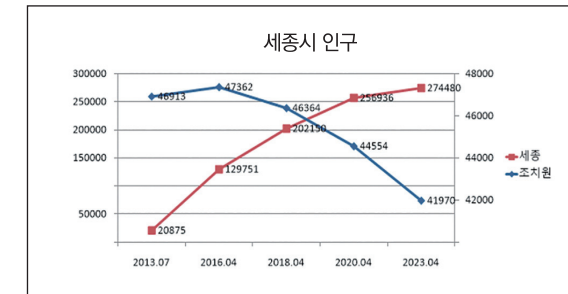
1. 신도심이 지어지고 난 후 원도심의 인구 변화

1-1.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조치원읍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12년 7월부터 건설계획을 하여 2016년에 행정구역을 “동”으로 변경하였으며 건설계획이 2012년이기 때문에 신도시를 실제로 지으려면 최소한 몇 년은 걸릴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최근인 2023.04월까지 약 2년 주기로 조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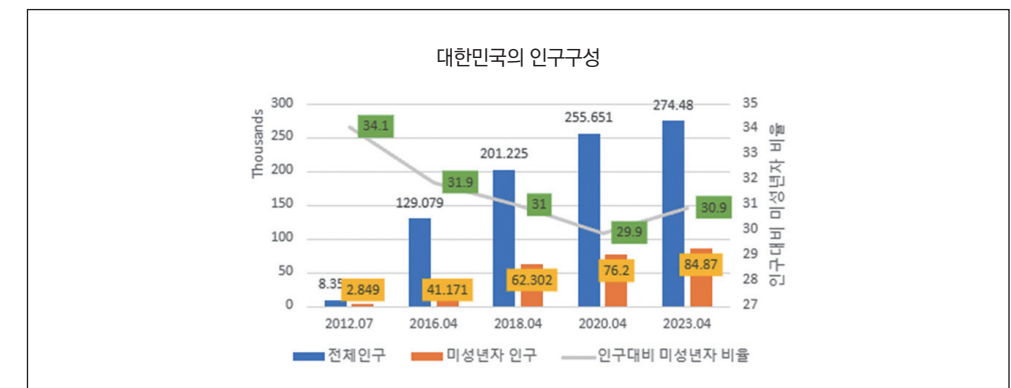
조치원은 기존 연기면의 중심지였으며 인구의 상당수가 조치원읍에 살고 있으므로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종시는 면 지역의 인구는 매우 적으며 특이하게 신도심 즉 행정중심복합도시만 “동”지역으로 되어있으므로 “동”지역들의 인구의 절대다수가 신도시 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통계가 발표한 자료를 정리하면 가장 오래된 2013.07년부터 2023.04년까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2023.04는 내국인 인구만 집계되었다.)

KOSIS 통계자료는 가장 오래된 2012.07부터 2016.04, 2018.04, 2020.04, 가장 최근인 2023.04년 도를 비교하였다. (KOSIS는 내국인만 집계하여 세종시의 통계와는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 이제 KOSIS를 통한 대한민국 전체의 통계와 비교를 하면



1-2. 청주시 오창-오송 : 청주시 같은 경우 구도심 지역에서도 재개발 및 같은 행정 구역 안에 신도심을 대규모로 짓기도 하여서 원래의 중심지인 구도심(청원군과의 통합 전 청주시)과 직접적인 비교가 힘들지만 가장 최근에 짓고 있는 오송신도시랑

기존 신도심이었던 오창신도시는 위치 및 방향이 매우 가까우므로 이를 비교할 것이다. 여기서 오창신도시는 오송신도시보다 더 옛날에 지었으므로 원도심이라고 가정하고 오송신도시는 신도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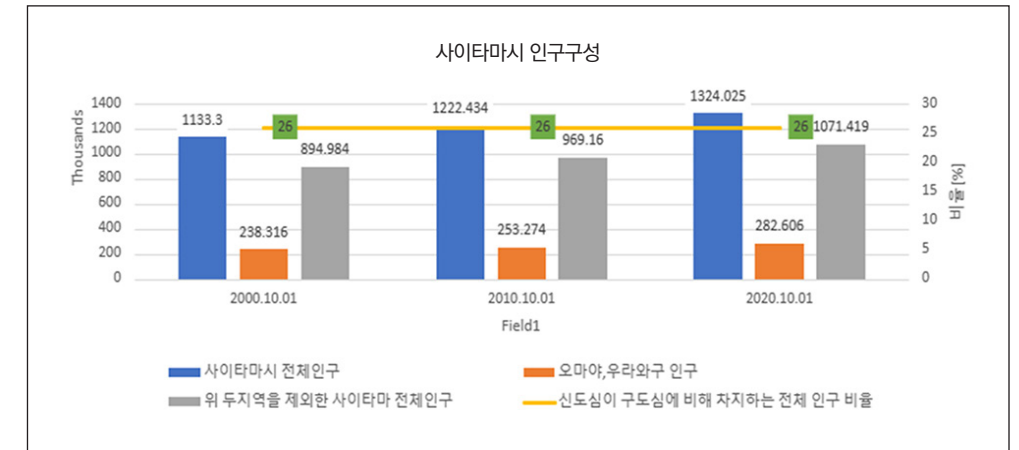
1-3. 충북혁신도시 - 진천군, 음성군 : 충북혁신도시는 진천군 덕산읍, 음성군 맹동면에 속해 있으며 진천군과 음성군 정 가운데에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천군+음성군)-(충북혁신도시) 인구를 비교할 것이다.

1-4. 외국의 신도시 : 국내와 비교하기 위해서 외국의 신도시를 살펴보았다.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옛날에 지은 신도심을 자료로 사용할 경우 구도심과의 비교가 어렵고 인과관계를 도출해 낼 수가 없으므로 가능한 최근에 지은 신도심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가능하면 각 국가의 정부 부처의 자료가 가장 신뢰성이 높아 이를 위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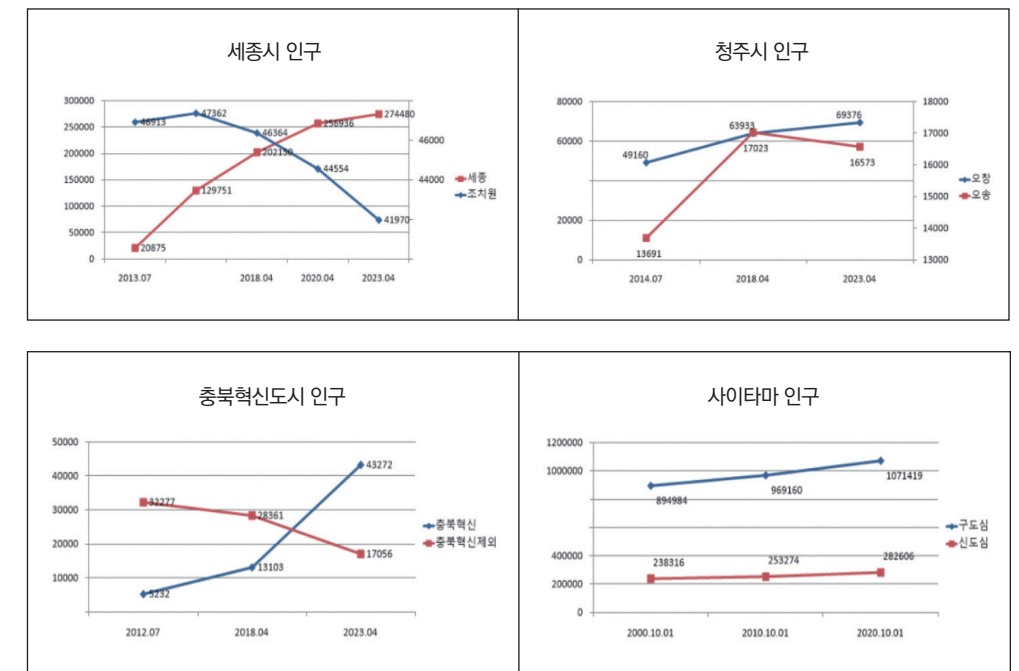
다음은 신도심-구도심, 신도시를 시공하기 시작한 대략적인 년도 순이다.

일본 사이타마신도심(오미야구,우라와구)-사이타마시 (1991)

사이타마시는 그 도시 안에 신도심인 오미야, 우라와, 요노시가 있으며 원도심은 그 외 지역이 있으므로 이를 비교할 것이다.



즉 이를 정리하자면



→ 결론적으로 세종시의 경우에만 구도심의 인구가 감소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에 신도심이 구도심의 인구를 꼭 감소시킨다고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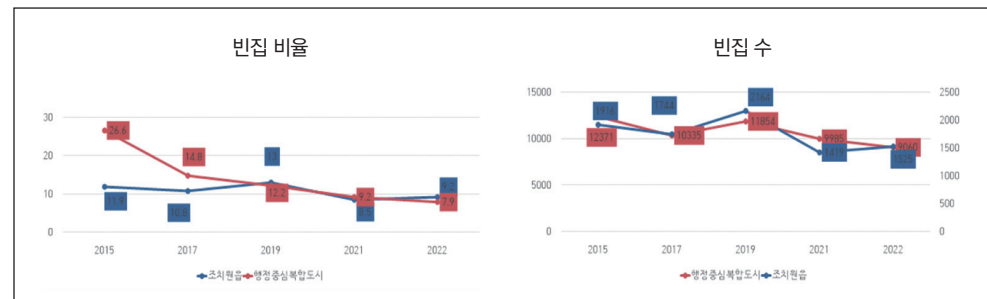
2. 신도심이 구도심의 집을 “빈집”으로 만드는 데 영향을 크게 주는가?

몇몇 지역은 기사 등으로 읍/면/동별로 낸 빈집 비율을 찾을 수 있었지만 전국적으로는 읍면동으로 분류된 빈집 비율에 관한 통계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다.

2-1. 세종시

세종시의 경우 읍은 조치원읍 하나이고 동지역은 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이다. 그리하여 KOSIS 통계청의 자료를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하였다. 통계청은 각각의 동/읍/면으로는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동부/읍부/면부로는 조사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이 자료를 활용하기 좋았다.

다음은 빈집의 비율과 빈집의 개수에 관한 추이 그래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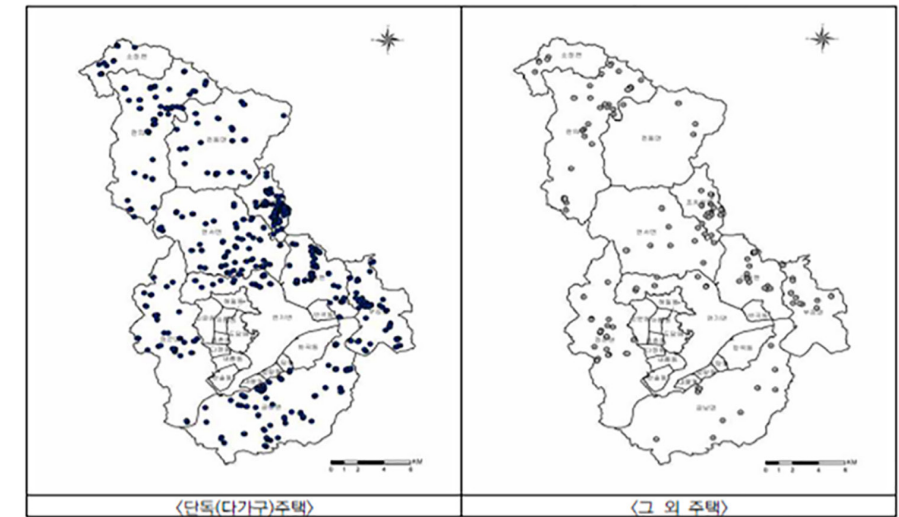


아래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가장 최근의 데이터인데 빈집의 개수와 비율이 KOSIS와는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조사기준과 방법의 차이 때문이다. 또한 “동”지역은 따로 아직 개발 중이라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표 2-13] 각 행정구역 주택유형별 빈집 현황

(단위: 호, %)

구분	단독·다가구		그 외 주택		계	
	빈집 수	비중	빈집 수	비중	빈집 수	비중
세종시	506	78.2	141	21.8	647	100.0
조치원읍	90	17.8	21	14.9	111	17.2
금남면	87	17.2	13	9.2	100	15.5
전의면	57	11.3	28	19.9	85	13.1
연서면	66	13.0	9	6.4	75	11.6
연동면	59	11.7	15	10.6	74	11.4
장군면	37	7.3	25	17.7	62	9.6
부강면	50	9.9	11	7.8	61	9.4
전동면	30	5.9	4	2.8	34	5.3
연기면	19	3.8	9	6.4	28	4.3
소정면	11	2.2	6	4.3	17	2.6



[그림 2-24] 주택유형별 빈집 위치도(각 유형별 구분도)

→ 조치원읍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모두 빈집 수와 빈집 비율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2. 오창-오송

오창읍, 오송읍을 따로 측정한 자료는 찾을 수가 없어 KOSIS에서 시군구별로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청주시 같은 경우 “구”안에 원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있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 KOSIS는 2015~2021년까지 빈집 통계를 하였다.

오송읍은 흥덕구에 속하고 오창읍은 청원구에 속한다.

행정 구역	2015 빈집비율 / 전체주택수		2018 빈집비율 / 전체주택수		2019 빈집비율 / 전체주택수		2020 빈집비율 / 전체주택수		2021 빈집비율 / 전체주택수	
흥덕구	8.1	76.424	9.3	81.905	11.8	89.843	8.6	91.126	7.3	92.954
청원구	10.0	60.112	10.3	68.865	9.0	68.536	9.2	68.648	7.5	69.491

다음은 KOSIS 빈집의 주택 빈집 사유에 관한 통계 중 “2010년 미분양 입주”만 분석하였다.

행정구역	빈집 (2010년)	빈집사유-미분양미입주	전체 빈집대비 미분양미입주 비율[%]
흥덕구	8.1	4540	62.0
청원구	10.0	1837	30.2

2010년 자료만 있었지만 2010년은 오송신도시가 아직 건설되었다고 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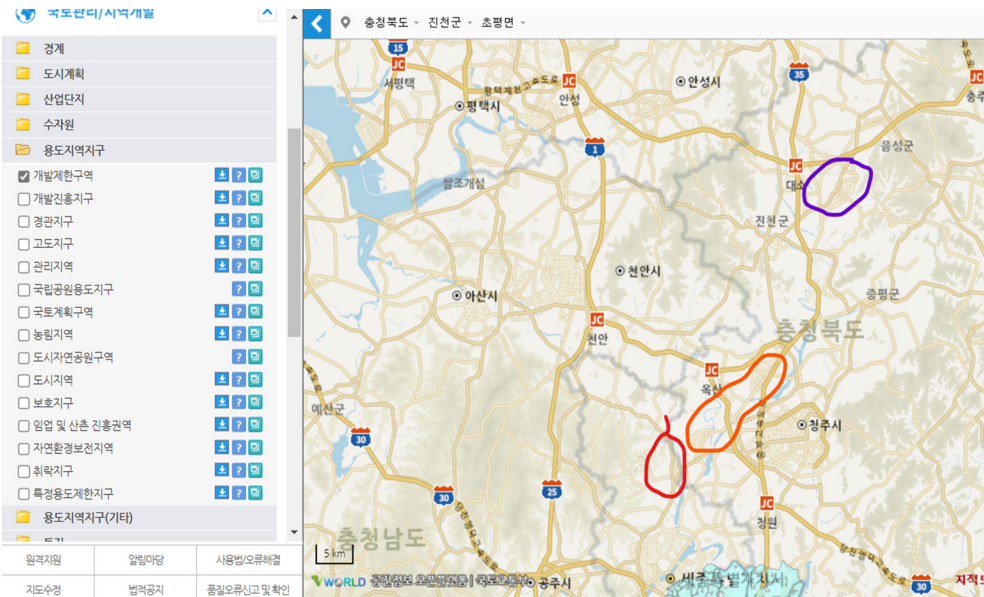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데이터는 조사기준이 KOSIS와는 많이 달라 오송과 오창읍 개발단지가 아닌 기존 농촌 지역의 빈집에 관한 데이터만 존재하였는데 다음이 그 데이터이다.(2022년 기준)

오창읍	오송읍
11 개	13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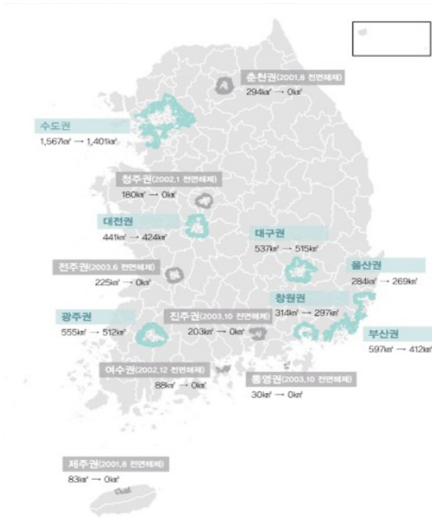
-> 오창읍-오송읍의 경우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해서 사실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3. 신도시가 기존에 있던 그린벨트(개발제한 구역)를 해제시키는가?

다음 지도는 국토교통부의 2023년 5월의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 지도이다.



위 지도에서 빨간색 원이 조치원읍, 주황색이 오송-오창읍, 보라색이 충북혁신도시이다. 지도 맨 밑 세종특별자치시 쪽 대전에 청록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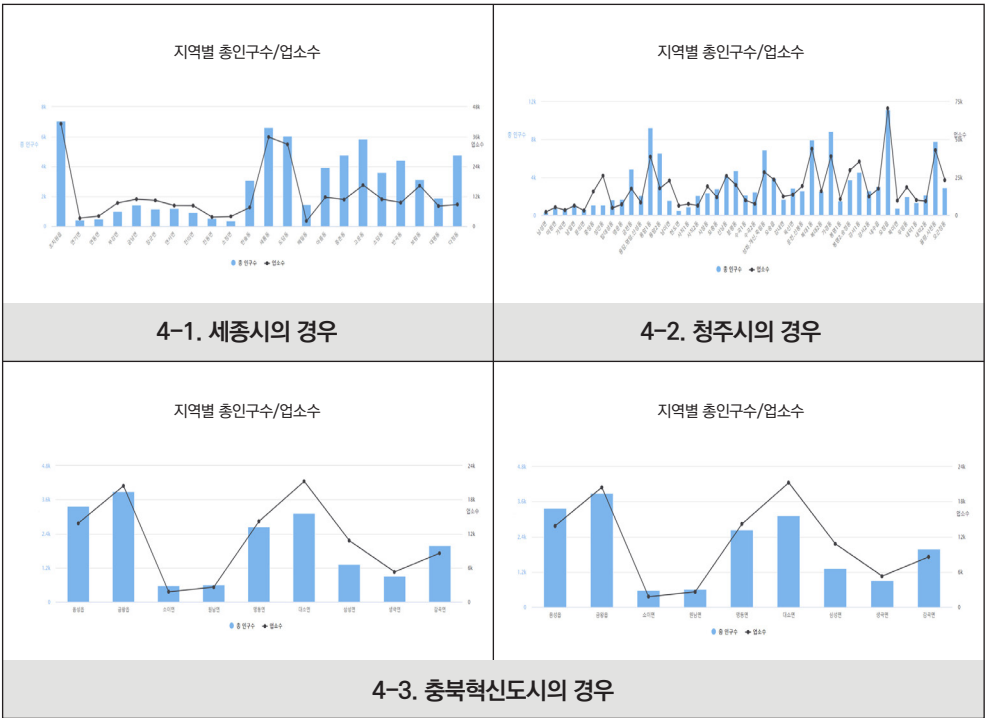


다음은 KRIHS 국토연구원의 개발제한 구역 지도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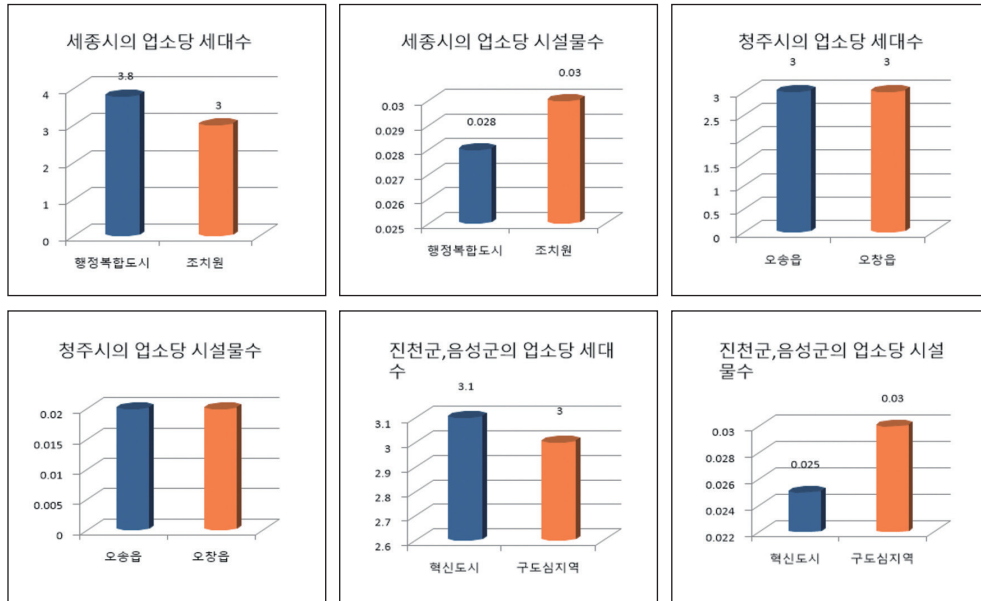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2. 1월에 청주시권의 그린벨트는 전면 해제되었다. 오창과학단지 즉 오창 신도시의 전선이 2001년에 준공하였고 오창 신도시의 위치가 그린벨트 권역 안에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였기 때문에 이는 사실이다.

4. 신도시가 원도심의 상권을 낙후시켜 구도심에서는 상가가 줄어드는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위 데이터를 통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밑에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 만약 신도심의 상권이 구도심의 상권을 몰락시켰다면 구도심의 업소의 수 및 집객·주요 시설의 수가 감소하여 업소당 세대수나 업소당 시설물 수는 신도심보다 큰 값이 나와야 한다. 또한 1번의 인구 자료를 참고하면 세종시를 제외하면 청주, 진천-음성은

출처

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통계, (2023년 4월말 기준 인구현황 - 2023.05.01.)
<https://www.sejong.go.kr/stat/bbs/list.do?key=1912123631625>, 2023-05-01
2. KOSIS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https://kosis.kr/serviceInfo/newContrainDataDetail.do?boardIdx=2008001&boardOrgId=101>, 2023-05-02
3. city population, JAPAN: Saitama City, <https://www.citypopulation.de/en/japan/saitamacity/>
4. 최준호, “세종시 ‘빈집’ 증가율이 ‘인구’보다 높았다”, THE FACT 전국, 2022.03.15,
<http://www.metrosejong.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4>
5. KOSIS 국가통계포털, 1.빈집비율(시도/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2005&conn_path=I2, 2022-07-29
6. Vworld지도,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I 국토교통부,
https://map.vworld.kr/map/ws3dmap.do?initTab=layer&initMode=2D&lyrId=LYRIDE_00000000000032
7. KRIHS 국토연구원,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31] 전국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2020년 말 기준),
https://www.krihs.re.kr/gallery.es?mid=a10702050000&bid=0043&list_no=25834&act=view
8. 상권분석-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현황-지역현황, <https://sg.sbiz.or.kr/godo/stat/area.sg>

구도심의 인구가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에 업소 수, 시설 수 자체도 같이 증가하여 야만 업소당 세대수 및 업소당 시설물 수의 숫자가 유지가 된다.

즉 구도심의 업소 수 및 시설 수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기 때문에 신도심이 구도심의 상권을 몰락시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결론 작성하기

저희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에서 언급한 논문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였습니다.

1. 신도시의 건설은 기존 구도심의 인구를 무조건 감소시키는 건가?

→ 일부 지역은 사실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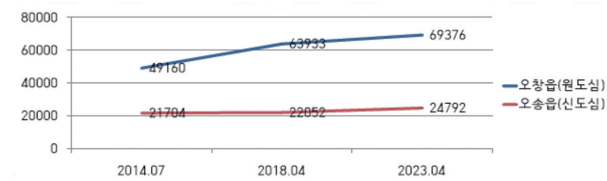
CASE 1 : 조치원 (원도심)-세종 행정중심복합단지 (신도심) = 구도심의 인구 자체가 감소한 것은 사실.

원도심인 조치원의 인구 자체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2012년~2016년에는 오히려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비록 세종시 전체인구수에서 조치원의 인구수 비율이 약 10년 동안 39.2%에서 10.88%로 대폭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원도심의 인구 자체는 약 5,000명만 감소하였고 신도시의 인구가 2만명에서 27만명대로 약 13배 증가했기 때문에 이는 신도시의 인구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치원읍과 대한민국 전체의 감소 및 증가 폭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증감폭	2012~2016	2016~2018	2018~2020	2020~2023
대한민국	1.44	0.4	0.10	-0.84
청원구	5.9	-2.8	-4.26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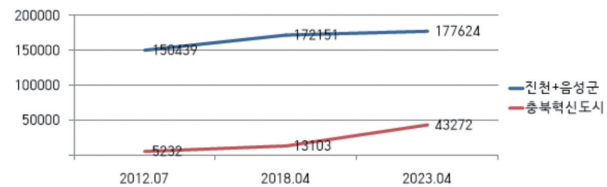
즉 원도심인 2012~2016년도를 제외하면 조치원읍이 대한민국 평균보다 감소 폭이 크기 때문에 신도시의 영향력에 의해 인구가 감소하였다고 볼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Case 2 : 오창읍(원도심) - 오송읍(신도심) = 사실 아님



원도심인 오창읍과 구도심인 오송읍 둘다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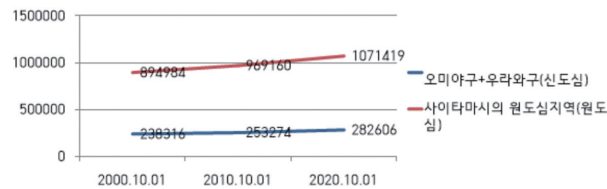
CASE 3 : 진천군,음성군(원도심)-충북혁신도시(신도심) = 사실 아님



원도심인 진천군+음성군(덕산읍, 맹동면 제외)의 인구가 증가하고 충북혁신도시(덕산읍+맹동면)의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실이 아닌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CASE 4 : 오미야,우라와구 (신도심) - 사이타마시 (원도심) = 사실 아님



외국인 일본의 사례 또한 원도심과 신도심 지역이 모두 인구가 증가하므로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와 마찬

가지로 외국 또한 신도심이 구도심의 인구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외국인 일본의 사례 또한 원도심과 신도심 지역이 모두 인구가 증가하므로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 또한 신도심이 구도심의 인구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또한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구도심인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비수도권 비광역시 지역에 신도시를 많이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인 서울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 결론적으로 이런 사례들을 여러 개 보았을 때 신도심이 구도심의 인구를 무조건 감소시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were excluded from growth development. To prevent population concentration in Seoul,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Population Relocation Plan in the Capital Area(1977~1986). The government also established the Industry Base Relocation Act in 1977 to restrict construction of new heavy and chemical factories in the capital area and attract appropriate industry complexes in five local metropolitan cities (Busan, Daegu, Incheon, Daejeon, and Kwangju) and new industrial bases such as Yecheon and Pohang.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Development Plan, which was proposed in February 1977 but cancelled, was another strategy for the Korea government to reduce urban sprawl in Seoul. Nevertheless, the population of Seoul was still increasing.

2. 신도심이 구도심의 빈집 비율을 꼭 증가시키는가?

-> 이것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이지만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CASE 1: 세종시의 사례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 비록 빈집의 개수가 가장 많은 곳은 조치원읍이 아닌 금남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신도심인'동'지역이 아닌' 곳은 전부 빈집의 개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MPDI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빈집의 개수가 급격히 증가한 곳은 신도시가 많은 경기도 지역이라고 하였으므로 신도시라고 해서 무조건 빈집 개수가 구도심보다 적다고 볼 수가 없다.

-> 일반적으로는 신도심

이 구도심의 빈집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사실이나 서울-경인지역과 같이 몇몇 예외가 있으므로 꼭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다.

From 2000 to 2010, as shown in Figure 5, the number of empty houses increased mainly in Gyeonggi Province, surrounding the capital Seoul, and Gyeongsang Province, located in the southeastern part of Korea (Figures 4 and 5). Eight out of the top ten regions with the highest number of empty homes 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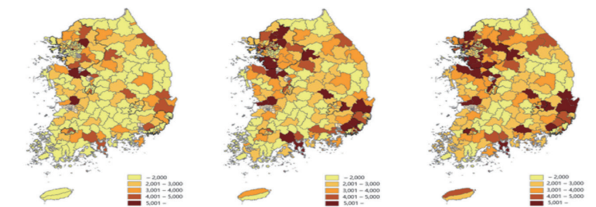


Figure 5. Change in the number of vacant houses (2000-2010). Data source: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0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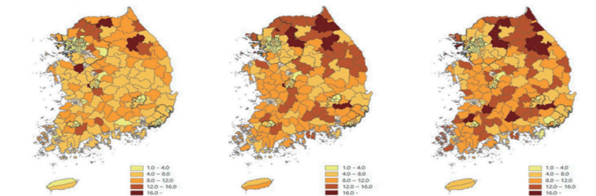


Figure 6. Change in the ratio of vacant houses (2000-2010). Data source: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0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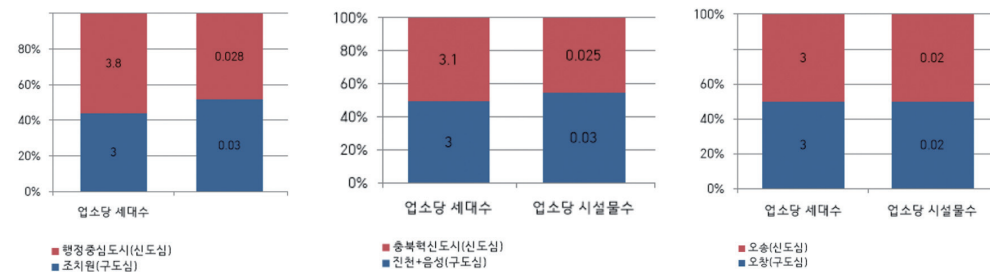
3. 신도시가 기존에 있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지시키는데 영향을 주는가?

-> 사실이다.

오창읍의 사례를 보았을 때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주권의 경우 2001년에 오창과학산업단지 즉 오창신도시를 시공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2002.1월에 그린벨트를 해제시켰다고 볼 수 있다.

4. 신도시는 구도심의 상권 특히 서비스업종을 몰락시키는가?

-> 사실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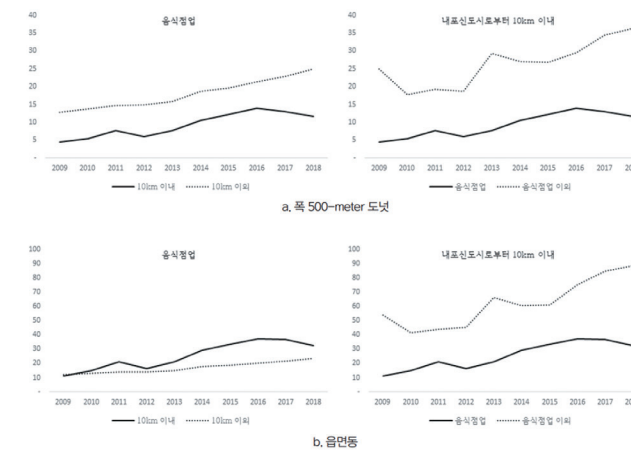


세종시를 제외하면 청주,진천-음성은 구도심의 인구가 증가하였고 업소 수 및 시설 수 자체도 같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업소당 세대수나 업소당 시설물 수는 신도심이랑 비슷한 숫자로 나왔다. 이는 신도심의 상권이 구도심의 상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시 또한 조치원읍의 인구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업소 수랑 시설수도 그에 비례해서 약간만 줄어들었기 때문에 신도심이랑 비슷한 값이 나오므로 결론적으로 신도심의 상권이 구도심의 상권을 몰락시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한국지역학회지 『지역연구』 제36권 제3호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에 의하면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의 경우 내포신도시 반경 10km 안에서는 오히려 내포신도시가 지어지자 신도심 지역이 아닌 지역 또한 상가

개수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 의하면 신도심 지역보다 오히려 근처 읍면동 지역에서 많은 수의 상가가 증가하였는데 2009~2018년의 동안 개발지역에서는 음식점업 개점 수의 지역당 평균은 4~25개인 반면에 개발지역에서 10km 안에서는 읍면동 지역에 의한

해당 수치는 11~37개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즉 신도심이 구도심의 상권을 몰락시킨다고 볼 수가 없다.

논문 출처

- 이범현, “Korean Version of New Town Developmen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2-05
https://archives.kdischool.ac.kr/bitstream/11125/42325/1/%282011%29%20Modularization%20of%20Korea%27s%20development%20experience_korean%20version%20of%20new%20town%20development.PDF
- 유혜정, “Different Factors Affecting Vacant Housing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in South Korea” MPDI, 2019-12-04
https://mdpi-res.com/d_attachment/sustainability/sustainability-11-06913/article_deploy/sustainability-11-06913-v2.pdf?version=1575714489
- 홍성호-이경주-임준홍,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지역학회지, 2020-09-23
<https://scienceon.kisti.re.kr/commons/util/originalView.do?cn=JAKO202030161655453&oCn=JAKO202030161655453&dbt=JAKO&journal=NJOU00297208>

미디어 콘텐츠

대한민국의 도시 역사

콘텐츠 소개

➔ 기획의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은 신도심이 구도심을 낙후시키고 구도심에 부정적인 영향만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 상세설명

이 영상은 총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파트 A (역사물)

1. 1958~2020년대까지 구도심과 신도심 지역의 모습을 보여주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주로 건축 관련)의 사진과 연도가 하나하나 흘러가는 영상입니다. (기록 박물관의 영상물과 비슷한 것입니다.)

파트 B (만화)

1. 주인공은 고향으로 내려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부동산을 가지만 예상외로 빈집이 별로 없다.
“XX신도시 지어서 이 지역에 빈집 많지 않아요?” 물어보고 팩트체크 캐릭터는 “꼭 그렇지 않아요.”하며 설명하는 내용
2. 캐릭터는 어렸을 적에 시장을 간 기억을 “만화 구름”을 통해 상상하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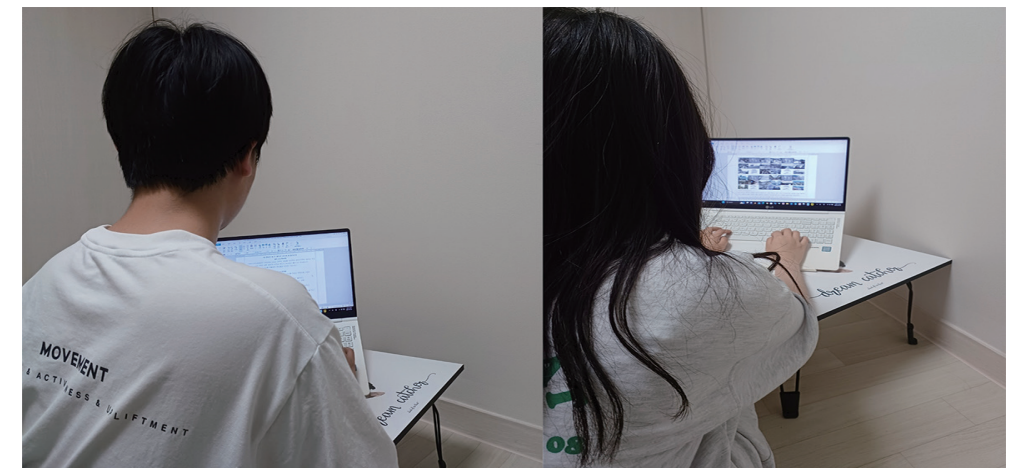
종합병원, 스타디움과 같은 큰 건물을 보면서 “어 이거 아직도 있네”등으로 말을 하고 과거에는 시장이나 변화가가 있던 자리에 방문합니다.

3. 시장이나 변화가는 여전히 유동 인구가 많이 존재하며 캐릭터는 자신이 어렸을 적에 시장에서 만두집, 짜배기집을 방문해 먹었던 기억을 생각합니다.
4. 여전히 기억 속에 만두집, 짜배기집이 존재하고 캐릭터는 이를 보면서 놀랍니다.
“신도시 지어져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5. 주인공이 꼭 신도시로 이해 구도심이 몰락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파트 C (인터뷰)

지역 상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제작된 콘텐츠는 유튜브 혹은 상영회 등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제작된 콘텐츠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측면을 보여주어 보는 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유튜브에 게시할 생각입니다.

참여소감

청소년 팩트체커를 처음으로 하다 보니 아직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평상시에 생각하지도 못한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팩트체크를 하면서 많은 자료를 보면서 저 자신도 지식이 늘어나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감명 깊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선택한 주제인 ‘신도시는 정말로 구도심을 낙후시키는 건가?’는 저희도 평상시에는 그렇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팩트체커로 활약하기 전에는 신도심을 건설하면 당연히 구도심의 인구가 이주할 것이고 그 결과로 구도심의 상권이 줄어들어 구도심 자체가 유행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믿고 있었지만 팩트체커로 활동하다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성민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평소 신도시가 구도심에 주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또한 여러 논문을 읽어보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콘텐츠 제작을 처음 해보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통해 많은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민

이번 팩트체커를 통해 팩트체커의 과정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비록 콘텐츠 제작이나 자료를 찾거나 설문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였지만 이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